

## 김승구의 <希望の家 희망의 집>에 대하여

이재명\*

김승구의 <希望の家 희망의 집>은 1937년 7월 《조선지광》에 실린 일문 단막극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해방전 공연희곡과 시나리오 발굴정리 및 공연문화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수하였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실수로 일어로 된 희곡을 유실하여, 번역본만 게재하게 되었다. 여러 연구자들께 이 점 사과드린다)

김승구(金承久)의 본명은 김상복(金相福)이다. 경기도 수원 출생으로 일본 메이지 대학을 중퇴했다. 1937년 『동아일보』에 <유민(流民)>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후 <希望の家 희망의 집>을 발표하였다(이 작품의 공연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는 1938년 중앙무대를 통해 <황금광상곡>을 발표하였으며, 1943년 <춘향전>(반도가극단)과, <로나 부인 행장기>(현대극장), 1944년 <화전지대>(아랑), 그리고 1945년 <산하유정>(아랑)을 발표하는 등, 그의 작품활동은 주로 1940년대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1945년작 <산하유정>은 제3회 연극경연대회에서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김승구의 극작품은 대부분 신파적 멜로드라마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1939년 극단 협동예술좌의 간부로 활동하는 등 노골적으로 친일행각을 벌였으며, 해방 직후에는 좌익 연극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조선문학가 동맹에 가담했다가 월북했다. 또한 북한에서의 활동과 생사 여부도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는 형편이다.

---

\* 명지대 교수

이 작품은 공산주의 활동 때문에 복역 중이던 유정숙의 남편 이원승이 감옥에서 출옥한 날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특별히 사건이라 할 만한 구성은 찾아보기 힘들며, 대신 차례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을 통해 작가의 이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새 시대 건설의 의지가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전경화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선전극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등장인물들이 특별한 내적 갈등을 겪지 않고 시대적 가치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전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용이 간략한 대신 관객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음향 효과와 노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황국신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며 보람되게 살아갈 것을 맹세하는 인물들의 감정은 삽입된 노래와 음향 효과에 의해 곧 독자 혹은 관객들의 감정으로 이입된다. 그러나 작품 전반에 흐르는 새로운 세계 건설의 의지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은 그 과도함 때문에 오히려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동참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탓에 작품 속에서 특별한 갈등 구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 후회하는 이원승의 내적 갈등이 잠시 그려지는 듯도 하지만, 곧 그는 주변 인물들에게 승복하고 국가를 부르면서 새 시대에 동참하는 일군이 될 것을 맹세한다. 단순한 구성 속에 인물들의 장광설을 통해 펼쳐지는 내용은 내선일치, 국민 총동원, 국기탑 건설 등을 선전하는 내용이며, 이 작품에서 선전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란 결국 국민 총동원령을 통해 건설되는 일본의 전체주의 국가에 다름 아니다.

# 희망의 집

## (일 막)

김승구

곳 어느 농촌  
때 현대  
인물 이원승  
유정숙  
양남  
김신규  
노무라 부장

### 해설

어느 봄입니다.

정숙의 남편은 공산당원의 활동의 희생자로 감옥에 가게 되어, 육 년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남편이 긴 옥중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기쁜 봄입니다.

여기는, 마을에서 벗어나 산기슭에 있는 정숙의 집입니다. 남편 없는 쓸쓸한 집에 정숙은 올해 여덟 살이 되는 양남이와 함께, 매일 밤 남편이 돌아오는 꿈을 꾸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 숙 양남아! 조금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니까!

양 남 엄마! 맨날 거짓말만 하고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돌아온다고 말  
 하고서는, 아빤 오시질 않잖아! 엄마! 정말, 아빠 오시는 거예요!  
 정 숙 그럼, 좀만 더 기다리면 오실 거야! 어쨌면 오늘밤에 오실지도 몰  
 라.  
 양 남 오늘 밤? 정말이야?  
 정 숙 그래, 어젯밤 꿈에, 아버지가 양남이한테 줄 선물을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오셨는걸!  
 양 남 정말! 엄마, 아빠가 오실 때 뭘 사 가지고 오실까?  
 정 숙 원하는 거 뭐든지 사 주실 거야.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니까 양남  
 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사 주실 거야!  
 양 남 엄마! 근데 아빠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정 숙 아주 먼 곳에 계신단다. 양남이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실려고, 돈  
 을 벌려고 말이란다.

해설

정숙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귀여운 양남을 끌어안고는,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사하게 돌아오는 날의 기쁨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느 날 밤입니다. 정숙은 양남을 앓고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살며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와, 가볍게 문을 두드리면서 정숙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 잠시 동안의 고요함 -
  -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
- 계속해서



소 리 정숙! 정숙!

(정숙에게는 들리지 않은 것 같았다. 양남은 어머니를 흔들며)

양 남 엄마! 엄마!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아요

정 숙 응? 뭐라고?

- 문을 두드리는 소리 -

소 리 정숙! 정숙!

정 숙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지?

(정숙은 일어나서 앞문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두드리는 소리는 뒷문이었다.)

양 남 엄마! 뒤쪽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정 숙 어 그래!

(정숙은 허둥지둥 뒤로 돌아서 문을 연다)

- 문을 여는 소리 -

- 여는 소리와 함께, 앓 하고 놀라는 정숙의 소리 -

정 숙 누구세요?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

정 숙 누구세요?

(방에서 양남의 소리)

양 남 엄마! 아빠 돌아 오셨어요. 응 엄마!

정 숙 앓! 당신은

(그 사람은 역시 정숙의 남편 이원승이었다. 떨리는 듯 말하는 그의 말)

부 그래! 나야! 정숙아!

정 숙 어머니! 당신!

(그녀는 할 말을 잃고, 남편에게 안긴 채 흐느껴 운다.)

- 정숙의 흐느껴 우는 소리 -

양 남 엄마! 누구야! 아빠 돌아 왔어? 응!

- 달려나오는 양남의 발소리 -

부 미안해 꽤 힘들었지?

양 남 엄마! 왜 우는 거야? 응, 엄마!

부 그래! 울지말어! 이제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하게 살자! 응! 정숙아!

정 숙 예! 전 너무나도 기뻐서 그만 저기 이리로 들어오세요! 양남아!  
아버지란다! 이렇게 컸어요.

부 양남이라고!

정 숙 예, 당신이 보낸 준 편지대로 양남이라고 했어요! 자, 양남아! 아  
버지한테 인사 드려야지! 자!

양 남 엄마!

(아이는 무엇을 느꼈는지, 어머니 품에 매달려 운다.)

- 잠시 동안 양남의 우는소리 -

부 왜 그래! 내가 무섭나!

정 숙 양남아 왜 그래? 응, 왜 우니?

(양남은 계속 울기만 한다.)

정 속 당신!

(정속도 양남이 우는소리에 같이 울게 된다)  
- 잠시 동안 우는소리 -

부 정속! 울지말어! 부탁이야! 너희들이 울면, 난! 정속아! 양남아 울지 마라! 울지 말라고 이쪽으로 오렴! 아버지가 안아 줄게 자야 그래 그래! 왜 그렇게 우는 거야?  
응? 아버지 돌아 왔는데 우와! 이렇게 컸는데 양남이 무서운 게니! 그렇지? 아버지가 무서운 거구나

양 남 아니에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부 뭐! 기뻐서! 우하하, 어이 당신! 양남이가 기뻐서 운데 하하하하

정 속 응! 양남아 그게 정말이니?

양 남 응!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었거든요!

부 하하하..... 정말 똑똑한 놈이네! 하하하! 양남아 이제 몇 살이니

양 남 여덟 살이요.....

부 뭐, 여덟 살, 호오!

정 속 당신이 그 쪽에 있을 때가 두 살이었으니까!

부 그렇군, 벌써 육 년이나 흘렀구려

정 속 아이고 내가 왜 이려고 있는 거지! 밥이라도 해야지 배고프시잖

부 아니 괜찮소, 저녁은 마을에서 먹었소.

정 속 어머, 그럼 마을에는 일찍 도착 하셨나보죠

부 응, 낮이 될 쯤 해서 도착했는데, 웬지 마을에 들어오기가 뭐해서 말이야. 그래서 해가 저물 때까지 마을에서 어정어정 돌아 다녔지! 자네에게 돌아 올 날을 알려두질 않았지만, 역시 몰래 알릴

것을! 그렇지만 마을사람들이 꽤나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안해 이렇게 당신만 혼자 남겨두고

정 속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양 남 엄마! 인제 나도 학교에 갈 수 있잖아! 아빠도 돌아왔으니까  
부 학교라니!

양 남 응! 엄마가 아빠가 돌아오며 학교에 보내 준다고 말하셨어요

부 그래. 이제 여덟 살이니깐! 좋아! 가야지 암 가야하고 말고, 양남  
아! 열심히 공부해 보자꾸나! 그래서 우리 양남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양 남 난 군인이 되고 싶어!

부 군인이?

양 남 응! 난 병정놀이가 너무 좋아

부 그래 하하하.

정 속 당신, 피곤하실텐데 얼른 주무셔야죠

부 아니, 좀 더 얘기하고 싶어! 지금 흥분이 되어서 잠이 오지도 않아!  
아! 이제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말어!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  
육 년이나 그런 곳에서 살은 덕택에 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얻게 되었어!  
육 년이란 세월에 난 즐거운 가정을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꿈만 꾸웠어.  
어두움 감옥 안에서 매일 밤 매일 밤, 너의 모습을 끌어안으며 눈물로 지새웠는지 몰라  
그리고 오늘, 이날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당신은 아마 잘 모를 거야!  
난 지금 너무나도 기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 주어서, 정말로 꿈같은 얘기인 것만 같았어!  
게다가 양남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고 정속 아!  
내 과거를 용서 해 줄래! 그건 다 지나간 얘기일 뿐 앞으로는 당신이 고생했던 것만큼 나도 할테니까!

정 속 아니에요. 전 조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당신보다 편안

히 지냈는걸요!

부 그럼! 당신 얼굴에 있는 주름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육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잖아?

정 숙 당신도 마찬가지로인 걸요!

부 내가 하지만 당신이, 더 심하구료! 그런 이마의 주름은

정 숙 그렇게 할머니로 보여요!

부 아니 얼굴은 그렇게 보이지만, 당신의 마음은 몇 십 배는 더 젊게 보이는 구료! 하하하

정 숙 어머!

-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흥분이 조금씩 가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웃는 소리 -

양 남 나 빼졌어! 엄마, 아빠만 얘기하고

부 아! 그래 깜박 했구나! 미안 미안

정 숙 양남아 잘 자거라!

양 남 싫어!

정 숙 자라니까! 말 잘 들어야지 착한 아이가 되지! 당신도 얼른 주무세요.....

부 응, 좀 더 방에서 이렇게 해보고 싶어! 야 정말 꿈만 같애! 감옥에서 눈을 감으면 방이, 눈앞에 떠올라 나온게! 어! 그런데 저 방에는 누가 머물고 있는가?

정 숙 예?

부 (놀라는 소리) 저 방에는 누가 머물고 있는 지 물었는데?

정 숙 아무도 없어요!

부 아무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게! 그럼 저 옷하고 내가 사용한 책상, 책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게요? 응? 당신 역시 내가 없는 중

에?

정 숙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당신이 입고 있었던 옷이랑, 책상, 책들을 저렇게 내 놓았어요. 당신이 없어도 방만은 당신이 있는 것처럼 해두었어요.

부 이런 그런 거였군. 하하하 난 또! 하하하 정말이군 정말로 난 육 년이나 감옥에 있었는데 그것은 몸뿐이었어. 마음은 언제나 저 방, 저 책상 앞에 앉아서 그리고 매일 밤 매일 밤 책을 읽는 꿈을 꾸었어.

정 숙 책을 읽는 꿈을 꾸?

부 그래. 책을 읽는 꿈을 꾸었어 그런데 왜

정 숙 그럼 당신은 아직 사회주의를 버리지는 못했네요?

부 하하하 사회주의의 말이야? 음. 아직 내 태도는 결정 되어있지는 않아. 하지만 걱정하지마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너에게 전과 같은 걱정은 시키지 않을 테니까!

정 숙 정말 부탁드려요. 예전의 것들은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 좋겠어요!

부 그럼 내 바람을 한번 들어 봐 줄래? 딱 한가지 바람이 있는데.....

정 숙 뭐죠? 갑자기 태도를 바꿀 정도로.....

부 정숙아. 이 마을을 떠나자. 난 이 마을에서 살기가 싫어. 내가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어도 마을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고, 게다가 웬지 이 마을이 묘지 같아서 편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사는 장소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정 숙 그렇지 않아요! 당신과 같은 사건으로 들어간 김신규씨는 지금, 마을에서 가장 신용 있는 사람으로 되었어요.

부 김신규?

정 속 아니 모르세요! 복지<sup>2)</sup>에 가서 통역관이 되어서 일했는데 작년 가을 부상을 입고 돌아 왔어요!

부 통역과?

정 속 예, 지금은 부흥회의 일을 혼자서 맡고 있어서 마을에서 대단히 좋은 평판이 있어요.

부 흥! 그게 부럽소

정 속 매일 집에 와서 당신을 걱정을 하거나, 보고싶다고 말하기도 한다고요!

부 흥 나를 만나고 싶었다고? 아무리 그래도, 난 그런 녀석을 만나고 싶지 않소!

(이때 문을 열고, 절름거리는 김신규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온다)

- 문을 여는 소리 -

신 규 하하하 여전히 건강해서 다행이군! 원승군! 너는 날 만나고 싶지 않아도 난 억지로라도 보고 싶었다네. 하하하

부 신규 자네?

신 규 응, 자네가. 자네가 돌아온다는 것은 전에 알고 있었네 너무나도 정답게 얘기하고 있어서 말이지, 들어 갈 수 가 있어야지 말이야! 덕분에 자네의 열의로 가득 찬 바람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 하하하! 그런데 어떤가 몸은?

원 승 응, 덕분에

신 규 그런가! 주재소의 부장님께서 오셨는데 말이야!

원 승 부장님께서?

신 규 응! 자네의 출옥을 알고, 여러 얘기를 하시고 싶다고 해서 같이

---

2) 만주 위쪽 지방

왔다네! 부장님! 괜찮으니까 들어오세요!

부 장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신 규 예 들어오세요!

부 장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정 레 어머 어서 오세요!

원 승 어서 오세요!

부 장 아, 안녕하세요. 저는 주재소에서 일하는 노무라 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 승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이원승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 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부 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몸은 괜찮습니까? 이원승씨?

원 승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 장 상당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 승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부 장 아니요. 저는 경험은 없습니다만 옥중 생활이 힘들다는 것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하하하.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댁에 오신 것은?

원 승 예, 방금 전에 와서 말이지요.

부 장 아, 그러세요? 그럼 너무나도 실례를 범했군요!

원 승 아니요. 별 말씀을 하십니다.

신 규 부장님은 아침에 뵙자고 하는 것을 제가 억지로 모시고 왔습니다. 요. 하하하.

부 장 부인, 상당히 기쁘시겠어요.

정 속 예!

신 규 갑자기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하하하

정 속 어머!

(일동 화기에애하게 웃는다.)

- 부 장 그런데 어땠습니까? 출옥하신 느낌은
- 원 승 예에. 너무 가슴이 벅차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부 장 그렇습니까?
- 신 규 저는 출옥했을 때, 뒷산에 올라가서 하루종일 울었어요. 왜 그런지 눈물이 자꾸만 나와서 말이지요.
- 부 장 김신규씨는, 감성이 풍부하시네요! 하하하 일동의 웃는 소리
- 부 장 그런데 이원승씨, 앞으로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김신규씨하고 들어서 방공협회분회와, 청년단의 일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 원 승 예에.....
- 신 규 자네가 거들어 주신다면, 내가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하하
- 부 장 김신규씨 혼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해 왔지만, 앞으로는 좀 무리가 아닐까 라고, 게다가 다리도 부자유스럽고 해서 더더욱 그러하네!
- 원 승 아! 그런데 자네 현지에 갔다왔다면서
- 신 규 응, 만주에 가서 지나어를 배웠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말일세. 하하하
- 원 승 통역관이라면서.
- 신 규 아니, 통역관이라고 하면 오히려 부끄러워! 실제, □□쓴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님
- 부 장 아니 그렇지 않다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지만, 지금은 자격을 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신시대입니다 하나의 확고한 신념, 국가의 일관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알고 거기에 토대가 되는 것을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제일입니다. 표면만의 자격은, 지금 시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김신규씨의

활동상을 신문에서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감동했다는 것은 통역관으로서의 김신규씨가 아니고,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김신규씨는 발이 부자유스럽게 되었지만 그건 명예스러운 거라 생각합니다.

신 규 아니요, 그렇게 까지 말하시면 부끄럽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전쟁터에서 일하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도 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하나의 기쁨은, 전쟁터에서 일한 덕분에 저는 예전보다 몇 십 배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전쟁만큼 한 국가의 국민으로써의 인간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을 때 인간은 처음으로 강하게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국민이 된 이상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쟁을 경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번 조선에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실로 기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 장 그럼요. 전쟁은 국민에 대해서 좀더 위대한 교훈입니다.

신 규 다시 한번 전쟁터에 가고 싶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하하하

부 장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신규가 가버리신다면 당장 저희는 어찌라구요! 하하하

신 규 하하하,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금도 일이 진척되지 않고, 전혀 재미없지만, 앞으로 이원승씨가 들어오면, 좋은 성과를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 장 음, 그렇군요. 잠깐, 실례를 끼쳤군요. 이원승씨의 감상을 들으러 와서, 전쟁 이야기만 해버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원 승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전쟁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가요 하하하

부 장 전쟁이야기는 나중에 김신규씨께 천천히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이원승씨! 건강이 회복되면 현재 김신규씨가 하고 계시는 것을 받아서 방공협회분회와 청년단, 진흥회 등의 일을 분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신 규 이걸,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당연히 이원승씨가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달부터 방공분회와 청년단은 자네가 맡아주게나. 난 다리가 요 모양이라서 말이지. 아무래도 돌아다니는 것은 무리라서 일이 좀처럼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다네.

부 장 그러면, 이원승씨 가족 전원이 하는 것이 되는 거네. 부인은 국방부인분회의 간부이니까. 하하하

신 규 아! 그렇게 되네! 가족 전원이 참가하게 되는 거군 하하하 부인 이원승씨가 출마하면 더욱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숙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부 따위가 필요 부끄럽게

부 장 아닙니다. 부인은 정말로 우리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입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인테리한 부인이니까요 하하하 저의 집 아내가 주옥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요! 이런 시골에서는, 정말로 아까운 사람이라고

신 규 정말입니다.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니까요!

부 장 이원승씨. 앞으로, 부인과 함께 더욱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 승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실은 저는 이 마을을 떠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 장 마을을 떠난다고요? 왜 그러시는 거죠?

원 승 예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역시.....

신 규 어이,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응!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게! 쓸데없는 것 말일세!

원 승 아니요, 당분간, 이 마을을 떠나는 편이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 장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신 규 자네! 힘을 내게나! 힘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원 승 아무래도 좀 그렇지만, 확실하게 얘기하면, 내 과거가 부끄럽다네! 내 수십 년 간의 망나니 같은 행위를 마을 사람들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과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경성 이든 어디든 가서 성공해서 돌아올려고 생각하네!

신 규 뭐야! 그런 이유 때문인가! 하지만 자네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네! 그런 기분은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은 나도 자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만주에 가서 2, 3년간 보냈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네! 그런 잘 못된 생각을 언제까지 가슴에 담아놓고 있을 건가? 그렇게 되면 자네만 힘들게 된다고! 자네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잘 못된 생각을 청산하고, 나와 함께 해야 할 일을 용감하게 부딪혀 가보는 걸세! 거기서 처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진정한 생활과 연관 되어있는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게야! 나도 만주에 있을 당시는 과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여러 퇴폐적인 생활도 했었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비건설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게되었지. 발버둥치면 칠 수록 멸망의 세계에 빠져 버리는 것을! 그게 지방사변을 계기로 통역의 일을 맡게 되고 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세계로 들어 올 수가 있었어!

부 장 그래 그래! 게다가, 이원승씨의 말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뭔가 오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네! 지금 국가로서도, 자네들과 같은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환영하고 있는 거 모르나! 결국 세계를 통해서 방공문제 우리나라의 통치적 과제의 일약으로서 내선일체<sup>3)</sup>,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

등에 대해서 문제의 핵심을 확실하게 파악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자네들과 같은 과거에 있어 잘 못 생각한 주의에 빠져 있었던 자네들의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네. 지금 보호 관찰소와 총동원 연맹 등에서 나와 있는 출판물을 봐도, 전향자가 튼 활약을 하고 있소! 물론 이원승씨도 경성에 가면 이런 운동에 관련해서 하시겠지만, 이 마을은 당신과 같은 절실히 필요하네. 현재, 지금의 일을 버리고, 경성 등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네. 난 쪽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원승씨가 생각은 어떤가요? 저희는 우선 향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매우 통속적인 이론이지만, 향리를 사랑하는 것은 한 지방을 사랑하는 것이며, 한 지방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신 규 자네! 부장님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 두고 함께 해봅세. 난 자네의 출옥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네는 잘 모를 거야! 자네가 나오면 반드시 이 마을을 모범부락으로 만들려고 생각했었네.

정 숙 네에. 그렇게 해요! 그러게 하면 저도 더 열심히 일 할게요! 그리고 국방 부인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일도 시작할 수 있고.....

부 장 호오! 어떤 계획입니까

정 숙 여러 가지 입니다! 강습회를 열어서 폐품이용에 관한 것이든지 위생, 아기 육아 방법, 간단한 세탁 방법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불필요한 것을 모아서 나라에 내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부 장 야야, 그거 대단할 것 같은데요

신 규 이것 봐 자네! 이렇게 되면 이 마을은 문제없이 모범 부락이 될 것일세! 그리고 자네의 가정은 모범 가정이 되고 말일세, 하하하네, 부장님

부 장 모범 가정이라, 하하하

신 규 야! 그래 깜박하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자네 이번에 철근으로 국기탑을 세울 생각인데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의견으로, 자네가 출옥하면 함께 기초공사를 하게 되었네!

부 장 야! 그래! 그게 있었자

원 승 자네, 고마우이! 부장님도요! 이 감격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정말 감개 무량합니다.

신 규 그럴! 자네! 맹세 해주겠나.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마을을 위해 굳이 얘기하면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말일세!

부 장 아니, 김신규씨 서두르지 않아도 되요, 이원승씨는 지금 막 돌아왔으니까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은가. 이원승씨 미안하네 천천히 생각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지요. 양남야! 자고 있나! 그런데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정 숙 예!

부 장 아버지 얼굴 모르고 있죠

정 숙 예! 어쨌든 두 살 때였으니까요! 정말 이상한 아이예요! 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라고 말하자 영영하고 우는 게 아니겠어요.

부 장 그야 무서워서겠죠

정 숙 아니요, 그게 무섭니라고 물어보니 기뻐서 우는 거라고!

부 장 하하하 과연! 정말 영리한 녀석이군! 이것으로 또 싸움대장이 오니까! 하하하 집에 오면 쪽 싸움만 하게 되나!

정 숙 정말 ???.

부 장 아니요 어린애 때는 실컷 싸우는 법이지요! 하하하 자, 김신규씨도 이제 돌아갑시다. 오랫동안 시간을 잡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정 숙 정말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원 승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부 장 가보겠습니다.

신 규 자네 오늘 밤 천천히 생각해 보게! 부인 오늘 밤 좋은 꿈을 많이  
꾸세요 하하하

정 숙 아이! 참 김신규씨도

신 규 안녕히 계세요.

- 문 닫는 소리-

- 다시 문 여는 소리-

원 승 자네, 잠깐만

신 규 왜?

원 승 지금의 부장님은 언제 왔는가.

신 규 우리들이 검거 당했을 때 당시 부장의 후임자로 알고 있네만

원 승 그래.

신 규 여기에 와서 3년째라고 하지만 놀라워 아무튼 일이라고 하면 반  
쯤 미친 것같이 일한다니까!

원 승 자네.

신 규 왜! 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원 승 마음 잡았네. 방공 협회 분회랑 청년단도 하는 것으로 자네와 함  
께.

신 규 하하하 마음 잡았는가.

원 승 아니 다시 태어난 것이야! 나는 부장님과 자네를 만나 새로운 생  
활을 결심하게 되었네.

신 규 좋아! 그래! 내 마을을 위해서

원 승 모범 부락을 만들어 보세.

신 규 자네의 집은 모범 가정이고

원 승 아니라네! 우리집은 희망의 집이라네

신 규 아! 그런가. 하하하

- 두 사람 크게 웃음 -

부 장 (돌아 와서) 뭐야. 아직 안 돌아갔는가!

신 규 아! 부장님,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부 장 잠깐 부인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부인!

정 속 예, 어머! 아직 계셨어요

부 장 아, 그게 말이예요 이원승씨가 몸이 쇠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내일 올 때 닭 두세 마리 가지고 올테니까 요리라도 하시라고요.

정 속 아니예요,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아도

부 장 아닙니다. 그 쪽에서 나오면 상당히 쇠약해져서 병이 걸리기 쉬운 법입니다.

정 속 정말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 규 부장님! 이원승씨가 마을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부 장 오! 그래 벌써 결정했다는 건가!

원 승 부장님 해보겠습니다. 내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이겠습니다.

부 장 (힘 주어) 음!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의지 나도 죽을 때까지 힘을 내지!

신 규 장기건설입니까, 하하하

부 장 음! 단연, 장기 향전으로 힘내세 내가 태어난 곳은 쿠마모토이지만, 뼈는 자네들의 손으로 묻어주길 바라네

- 부장과 신규 환하게 웃는다 -

부 장 아니, 벌써 새벽녘인가!

신 규 벌써 아침해가 뜨기 시작하는 걸, 그렇게 오래 얘기를 했나

- 여기서 반주만으로 국가<sup>4)</sup>가 낮게 나온다 -

- 국가<sup>5)</sup>의 반주에서 원승의 다음 대사를 부드럽게 -

원 승 아. 순엄한 아침! 새로운 태양 여러분 봐 주세요. 저는 태양과 같이  
어제의 피곤함, 어제의 더러움, 낡은 어제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어제의 굼주림을 가뜰 채워서 새롭게 이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 순엄한 아침  
이여! 태양이여

- 국가가 갑자기 크게 들린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며 끝낸다

- 끝 -

K C I

---

4) 國歌

5) 國歌